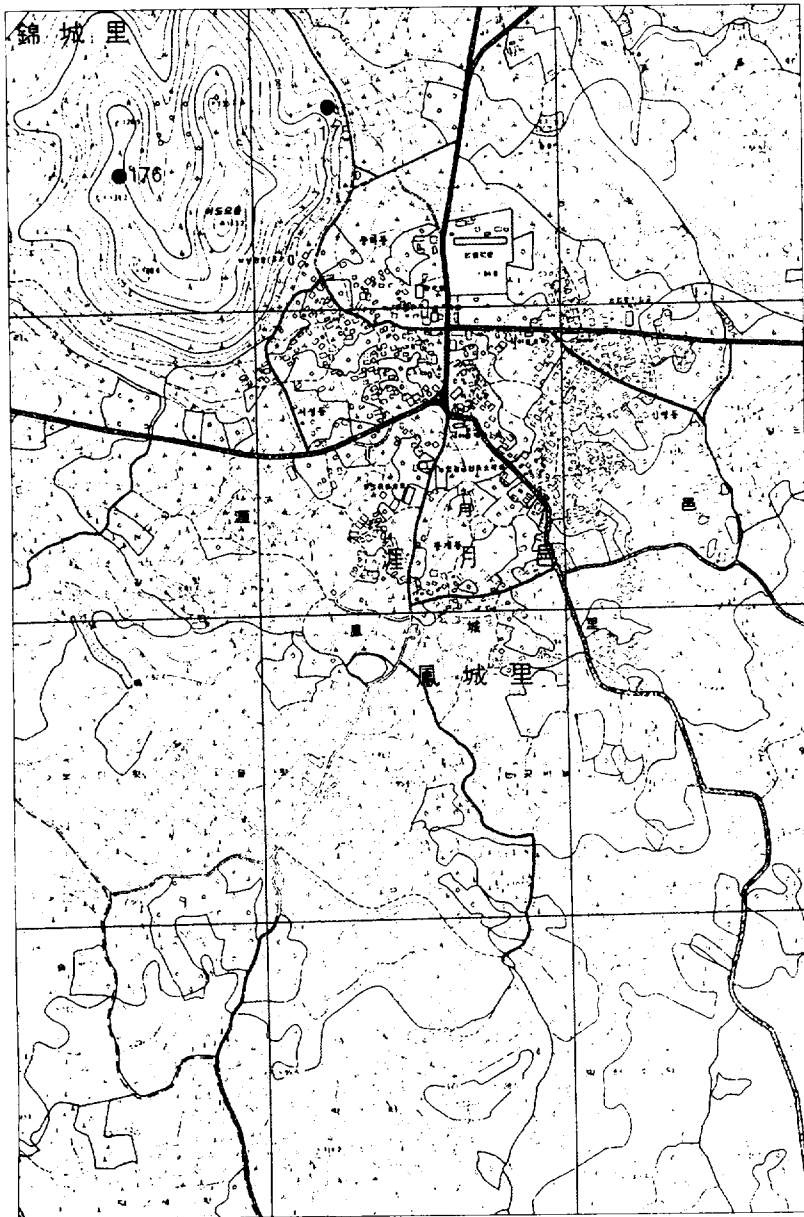


■ 연지학술조사보고

北濟州郡 涯月邑 鳳城里

2001년 6월 27일 ~ 6월 29일 조사

● 사회 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社 會 背 景

차 례

- | | |
|-----------|----------|
| 1. 지리적 환경 | 4. 산업 구조 |
| 2. 역사적 배경 | 5. 비 석 |
| 3. 인문 환경 | |

이번 봉성리 학술조사에서 사회배경 조사반에서는 애월읍 봉성리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환경, 산업환경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때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설촌유래와 봉성리의 오름, 또한 서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어도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봉성리가 비석이 많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비석에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애월읍 사무소, 봉성리 사무소, 봉성리 농협분소, 어도 초등학교 등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것을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역사적 환경의 경우 등의 문헌에 그 내용이 많지 않아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청력이 좋고 마을 현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잘 아는 강형관 할아버지(69세), 강규방 할아버지(61세), 강순호 할아버지(72세), 강창준 할아버지(90세)의 구전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1. 지리적 환경

봉성리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 북제주군 애월읍 소속이며 구 물동, 신명동, 중화동, 서성동, 동개동, 화전동 등 6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 위치는 한라산에서 서북 측으로 뻗어 나가면서 고기(高期)의 분출에 의한 현무암 층으로 추적 형성된 분석구로 분산하면서 계곡과 경사도를 이루면서 어도봉에 이르러 옥봉소귀형(玉鳳巢歸形 : 봉황이 날아드는 모양)을 이루었다. 봉성리는 그 위치가 한라산중산간이라 산림이 무성하고 자연환경이 좋으며 농토가 넓다.

주변입지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약 2km지점에 남읍리가 있고,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한림읍의 경계가 되며 동남쪽 2km 지점에 괄지, 금성리, 서북쪽 약 2km 지점에 귀덕리가 인접하여 있다.

또한 봉성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산간 지방에 입지 해 있어 애월읍에서 가장 많은 9개의 오름(괴오름, 빈내오름, 폭낭오름, 다래오름, 눈오름, 새별오름, 이달오름, 어도오름, 북돌아진오름)을 가지고 있다. 포제단과 방사탑, 할망당, 구머리당(나무 흔적만 보임) 등이 남아 있다.

1) 오름

① 어도오름(도내미오름)

어도오름은 애월읍 봉성리 어도 초등학교 서북쪽에 위치한 오름으로,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어도오름은 동서 두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 봉우리가 정상이고, 이곳에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것이 도내봉수이다. 이 봉수는 동으로 고내봉수, 서로는 만조봉수에

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봉수대의 소속이 금성리로 되어져있다고 한다. 이 도내봉수에 관한 내용중 북제주군과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북제주군의 문화유적』에서 발췌한 것을 첨가 한다.

도내봉수는 애월읍 금성리 1149-30번지에 있었으며 명월진에 소속된 봉수였다. 그 위치는 한림읍 귀덕리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약 3.8km 떨어진 해발 143m의 어도오름 서쪽 봉우리에 해당된다.

봉수대의 북동쪽으로는 고내봉과 애월진 북서쪽으로는 귀덕연대와 우지연대, 남서쪽으로는 망오름과 송아오름 그리고 멀리 당산봉이 보인다. 도내봉수는 북동쪽으로 고내봉수, 남서쪽으로 만조봉수와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

참고문헌: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 (북제주군, 1999) pp.172~173

삼림구조는 삼나무와 해송이 주종을 이루며 접목으로 덮인 숲을 이루고 있으며, 남동쪽 사면에서 오름 정상까지 밀감, 키위과수원이 조성되어 있고, 화구안쪽 사면으로는 아카시아나무, 닥나무, 보리수나무, 팽나무 등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다.

② 드래오름

드래오름은 예전에 드래낭(다래나무)이 많아 드래오름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다른 학자들은 제주지명에 나타나는 '돌·달·돌이·달이·도래·다래' 등은 모두 '돌·달'에서 나온 것으로 이 '돌·달'이란 '높다' 또는 '산(山)'의 뜻을 지닌 고구려 또는 고조선 시대의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드래오름은 서부산업도로변 캐미오름에서 동쪽 약 750m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서부산업도로 어음교(於音橋) 서쪽 목장 안의 시멘트포장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름 앞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또한 이 드래오름은 북동쪽으로 터진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

으로, 빈네오름, 폭낭오름, 궤오름과 함께 정사각형의 한 정점을 이루고 있고, 웃세오름, 세오름(1100고지 삼형제오름), 한대오름과 정서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식생은 다래나무, 산딸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가 함께 잡목과 가시덤불이 뺨뺨하게 우거져 있다.

③ 빈내오름

빈내오름은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동북쪽에 위치한 오름으로, 서부산업도로변 호명목장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오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에는 북돌아진오름, 드래오름, 폭낭오름, 이돈이오름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게 이어진 두 봉우리가 남서쪽으로 침식되어 갈라진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다.

남사면은 가파르고, 서사면은 완만한 초지(풀밭)를 이루면서 짙레꽃이 많고, 그 외 지역은 잡목 등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빈내오름이란 이름의 유래는 오름 봉우리 꼭 바위가 꼭진 머리에 빈네(비녀의 제주방언)를 꽂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데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비녀 채(釵)자와 비녀 잠(簪)자를 써서 '釵岳'(채악), '簪岳'(잠악)으로 표기하고 있다.

④ 폭낭오름

서부산업도로변에서 호명목장 진입로로 들어가면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가기 전의 도로 좌측에 송이벽돌을 제작하던 제화산업공장이 방치된 채 있는데, 그 뒤편으로 보이는 오름이 폭낭오름이다. 오름 정상부에는 하나의 말굽형 화구와 남서측에 2개의 원추형 화구로 이루어진 형태의 복합형 화산체이다.

오름 전사면이 완만하면서 사면을 따라 풀밭을 이루고, 주요식생은 산뽕나무, 분단나무, 자귀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있고, 오름 정상

부에는 가운데가 얇게 우묵져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있다.

위치상으로 괴오름, 폭낭오름, 빈네오름, 다래오름이 사각형의 네 귀퉁이를 각각 차지하면서 사각점 중간에는 넓다란 초원을 이루고 있다.

퀘미오름쪽으로 제주도 산서지역의 중산간에는 넓다란 초원이 펼쳐지는데, 이 초원(퀘미오름 방향)에는 제주도 산서지역의 중산간 이하와 거제도에서만 자란다는 갯취(안자리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폭낭오름이란 지명은 이 폭낭오름에 큰폭낭(팽나무)이 있어서 폭낭오름이라 불리고 있다고 하며, 한자명으로는 彭木岳(팽목약)으로 표기하고 있다.

⑤ 퀘미오름

서부산업도로변 북돌아진오름과 서로 이웃한 오름으로 고양이등처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 퀘미오름이라 부르고 있으며,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주요식생은 가시덤불과 잡목 등으로 이루어진 울창한 자연림의 숲을 이루면서 숲 그늘아래에는 새우난¹⁾, 복수초, 조릿대, 천남성 등이 자생하고 있고, 오름 주변 목장지에는 갯취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지형도(1/5,000)상에는 이 오름이 동물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⑥ 동물오름(북돌아진오름)

서부산업도로변 호명목장 입구에서 북동방향 약 1km지점에 위치하여 산정부에 큰 바위가 박혀있는 오름으로 서부산업도로상에서 쉽게

1) 새우난<난초과> : 봄철 높지 않은 산지 숲 아래에서 넓은 잎 사이로 단단한 꽃대가 올라 흰색에 연한 자주색이 도는 꽃이 달리는 새우난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다년초로, 4~5월에 피는 꽃은 꽃줄기가 잎사이에서 나오고 씨방과 더불어 1~2개의 비늘 같은 잎과 10여개의 꽃이 달린다.

구별할 수 있다. 북서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으며, 산정부 언저리의 암벽이 마치 커다란 북이 걸려 있는(돌아진) 모양 같다고 해서 재미오름과 분리하여 북돌아진오름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요식생은 해송, 상수리나무, 가시덤불, 잡목 등으로 자연림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바위벼랑은 수직의 암벽이며, 주변은 조릿대, 가시덤불이 무성한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⑦ 새별오름

서부산업도로변 시온목장입구 서쪽 도로연변에 위치한 풀밭 오름으로,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작은 봉우리들이 북에서 서로 타원을 그리며 솟아 있고 서사면으로 넓게 휘돌아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으며, 북사면 기슭에도 작게 패어있는 소형의 말굽형 화구를 갖고 있어 이 오름은 복합형 화산체로 볼 수 있다.

오름 정상 북쪽사면에는 일부 잡목숲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풀밭을 이루면서 서북쪽 사면에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서부산업도로 화전동 입구 반대편 군도(郡道)를 따라가다 두갈래길 중에 우측 봉성리 방향의 길로 조금 더가 면 이달봉 남쪽자락으로 시멘트 포장길이 나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새별오름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녁하늘에 셋별과 같이 외롭게 서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자이름은 한자의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라 한다.

⑧ 눈오름

애월읍 봉성리 신명동 남쪽, 약 1km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북쪽으로 반달모양의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동·서·북쪽사면에 해송이 일부 식생하고 있고, 정상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오름 사면을 깎아 과수원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⑨ 이달오름

서부산업도로 시온목장입구 서쪽연변에 새별오름이 있고, 새별오름 서쪽에 이웃해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달봉은 북쪽에 이웃한 이달이쫓대봉과 함께 원추형의 쌍둥이화산체(twin volcano)라고 할 수 있다.

이달이쫓대봉의 정상부에는 용암유출 흔적인 화산암이 노출되어 있고 식생은 전체적으로 풀밭 오름을 이루고 있으나, 쫓대봉 남쪽 벼랑 밑으로는 짙레나무, 사스레피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이달봉은 서부산업도로 화전동 입구 반대편 군도(郡道)를 따라가다 두갈래 길중 우측 봉성리 방향의 길로 조금가면 군도가 오름 자락을 지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달 오름이란 지명은 앞서 나왔던 다래오름처럼 ‘달’은 ‘높다’ 또는 ‘산’의 뜻을 지닌 고구려 또는 고조선 시대의 말로, 이달오름은 ‘이달→이달이→이달오름’의 변화로 결국 ‘2개의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2) 기타 지명

① 포제단

봉성리 포제단은 봉성리 마을 회관과 구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농로를 따라 어도오름 오른쪽으로 100m 가량 올라간 곳에 있다. 정확한 주소는 3920-14번지이다. 이곳을 흔히 ‘포젯단’, ‘포제판이’라고 한다. 소나무 숲 속 비교적 평탄한 곳에 나무를 베어 내고 제장을 마련했다. 제단은 맨 위쪽에 2개 마련되어 있다. 포신단과 토신단이다. 제장 입구 오른쪽에는 제청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제장을 에워두르는 울타리는 따로 없다. 상석은 자연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그 앞에 정육면체로 다듬은 자그마한 자연석이 세 개씩 놓여 있다. 이를 좌우로 조금씩 간격을 두어 배열해서 향석(香石)으로 삼

고 있다. 제청은 시멘트로 벽을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었으며, 철문을 달아 평소에는 잠가 두고 있다. 준소나 망료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천제(天祭)라 한다. 제관은 7~8명으로 구성한다. 포제단에 마련된 제청에서 7일 동안 정성한다. 과거에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매었으나 차량 통행이 많아지자 마을 회관에만 맨다. 희생으로는 돼지 1마리, 닭 1마리씩 올린다.

당시에 직접 가보았을 때는 수풀로 인해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자연석의 제단이 잘 안보였고 또한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준비하고 제기 등을 모아두는 건물 또한 일반 창고와 형이 비슷하여 봉성리의 포제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찾기가 힘들다.

② 할망당

할망당이라 불리는 당(堂)의 위치는 구물동 3683번지 내에 거대한 팽나무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 무속신앙이 큰 비중을 갖고 있던 당시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설촌 중반기로 추측된다. 부녀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맨 먼저 수확한 곡식을 마련하여 풍년 농사와 집안에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찾아가는 곳이었다.

1956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거목 팽나무는 부러지고 그 후 잔여부분이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 의식변화에 의하여 믿음이 불교와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당의 메인 심방의 대가 끊기면서 당을 찾는 부녀자들도 뜸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당을 찾아 지성을 드리고 있어서 당신앙(堂神仰)은 아직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③ 구머리당

자료상으로는 위의 할망당과 다른 당으로 나와 있으나 마을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당으로, 동일 지역으로 확인되어 졌다.

아래 자료는 참고로 남긴다.

봉성리 어도오름 동쪽에 위치한 '구머리' 마을 안쪽의 밭에 위치해 있다.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었으나, 1970년대에 태풍으로 없어져 터만 남아있다.

밭 윗타리 한쪽 멀구슬나무를 비롯한 낙엽수가 10여 그루 자라는 곳에 자연적으로 야트막하게 제단을 마련했다. 물색은 제단 뒤쪽의 텃밭에 걸쳐 있다. 송씨 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봉성리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을 관장하는 본향당이다. 제일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택일하여 다닌다. 제물로써는 사발 메 1그릇, 보시메 2그릇, 돼지고기를 올린다. 당 메인심방은 세습무인 고중석이었다. 봉성리 사람 대부분은 구머리당에 다니고, 일부만 어음리당에 다닌다. 그러나, 어음리 사람들이 봉성리당을 다니는 경우는 없다. 본초가 무가와 보고에 실려 있다.(봉성리 사무소 제공)

④ 방사탑

방사탑은 원래 마을의 풍요와 재앙을 막는 수단이나 이 봉성리에 서의 방사탑은 마을 바깥의 영향보다는 마을 안의 복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졌다. 즉 마을의 윗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사탑의 위치는 할망당 근처에 있으나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고, 설치시기 또한 마을 사람들도 방사탑의 세워진 시기를 알지 못하고 방사탑의 표지판도 유실되어 있어 알 수가 없었다.

3) 용수

봉성리는 중산간에 위치하여 있어 타 중산간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이 매우 귀하었다고 한다. 용수는 마을 주변의 물(빗물이 모아진 것)로 가축이나 농경지에 사용되었고 (물이 가축의 배설물이나 기타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어 식수로써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 식수는 주로 마을 밖에서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봉천수나 빗물

을 사용하다가 1966년 5월부터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 이후 수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봉성리의 이전 식수와 우마수 사용 저수지(샘)명〉

샘명(속칭)	비 고	샘명(속칭)	비 고
한세미3곳	구물동과 중화동민 식수용	관 전 못	중화동 우마수용
바중이샘	구물동민 식수용	막 가 림 샘	서성동민 식수용
지세나못	구물동 우마수용	막 가 림 못	서성동민 우마수용
괴맨이샘	동개동민 식수용	방 축 샘	마전동 고도동민 식수용
괴맨이못	동개동민 우마수용	방 축 못	마전동 고도동민 우마수용
신명동못	신명동 우마수용	상수마루샘	상시동민 식수용
괴맨이샘	1952년 시설 신명동 식수용	오근다리샘	저이동민 식수용
관 전 샘	중화동민 식수용	셋 샘	저이동민 식수용

(자료 : 애월읍지)

4) 마을 면적

(자료 : 애월읍지)

총 면 적	답	전	과 수 원	임 야	기 타
3,258.3	1	398.4	166.8	1,646.2	1,045.9

(자료제공 : 봉성리 사무소 - 2001년 현재)

마을이 이렇게 넓은 토지를 갖게 된 이유는 1913년에 일본에서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실시(주로 하천 중심으로 나뉘었다)로 지역의 경계를 가르게 되었는데, 당시 이 마을의 권력이 큰 이유도 있었고, 이 마을에 일본인들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많은 부지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넓은 부지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주변지역보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마을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봉성리의 유래를 살펴보면 설촌은 조선 선조 33년(1600년)으로 추측되며 확실한 문헌이 없어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최초의 리명은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가 도내산리로 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고종 33년(1895년)에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58년간 불러오다가 1953년에 봉성리로 개명되었다. 봉성리의 유래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설촌 유래

봉성리의 설촌유래는 문헌상으로 370년 전 조선 시대 때 '강(姜)씨'가 현 봉성리 위치에 들어와서 주변 씨족가구(당시 마을전체에서 드문드문 용수주변에 2~3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마을로 보기에 너무 규모가 적었다.) 중 하나인 '문씨' (당시 안구말에 살았었다고 한다)와 연을 맺어 아들 8형제를 낳고 큰 씨족사회를 형성하여 마을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문씨 일가의 후손과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문씨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문씨 이전에 '서씨'가 살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약 100년 전이었다. 그 근거로 현재 서근이동네(빌레 - 하지만 이러한 근거도 구전이라 확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명이 마을에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서씨에 관한 내용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헌상 남아 있지 않고 구비로만 전해지고 있어 현재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강씨가 설촌의 대상이라 하겠다.(4·3이 지난 후 홍씨, 문씨(앞서 말한 문씨와는 관련이 없다) 등이 들어 왔다) 그래서 이 봉성리에는 현재에도 강씨가 마을 인구의 50%정도가 되어 '어도 강씨' ('어강'이라고도 함)라고도 한다.

『애월읍지』에 나온 자료가 위의 내용과는 다른 자료가 있어 참고로 남긴다.

문헌에 의한 확실한 유래는 알 수가 없으나 기원을 더듬어 보면 1300년(고려 충렬왕 26년)에 동·서현을 설치하면서 애월, 꺾지, 귀덕, 명월 등에 따라 해안지대에 이어서 중산간에도 집촌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몇 가구씩 거주하지 않았나 보며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 도내봉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동·서의 연락망으로 사용하였고 1702년(숙종 28년)에 비양도에 산 노루를 몰아 집결시키는 데도 도내봉을 활용하였다. 3833번지 일대가 관전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면 당시 봉수대 관리 책임자이거나 몇 사람이 상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살기 시작한 시기는 1600년(선조 33년)으로 추측된다. 당시 거주 인으로는 구물동에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事) 남평(南平) 후인(后人) 문공(文公) 명익(明翼), 진주(晉州) 후인(后人) 강공(姜公) 두형(斗炯), 첨지(僉知) 대구(大邱) 서수발부자(徐秀發富者)와 상시동에 부(夫)저리부자(富者) 허(許)정, 보섭장사 동(洞)직근의 힘센장사 등이며 그 후 명씨족들이 도내 각처에서 진입하면서 집촌이 형성되었다.

* 자료출처 - 『애월읍지』, pp.236~237

봉성리는 최초에 1구, 2구로 분리되어 있었다. 1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물동, 화전동 등 5개의 자연마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동동네 석각씨등으로 부르다가 2개의 동을 합하여 동개동이라 불렀으며, 청경이동·서근이동 2개의 동을 합하여 서성동이라 불렀으며, 중화동은 마파지동이라 부르다가 관전동 앞동네를 합하여 중화동으로 하였고, 구물동은 연못(속칭)지세나못이 있는데 목과 지형지세가 거북이가 진흙에 빠진 형이라 하여 구물니동이라 부르다가 구물동으로 하였으며, 화전동은 솔도동·공초동이 합하여 부르는것이다.

2구는 자이동, 고도동, 마장동, 상시동, 마당이동, 금천동 (자리왓, 고드리왓, 돌핀, 상서모름, 열류왓, 지름끼) 등이었으나 1948년 4·3

사건으로 인하여 각지로 분산 소개되어 남은 사람들이 1구로 내려와 동년 동개동 부유한 택지를 택하여 집단으로 마을을 재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1950년 2구의 행정이 1구로 합병하게 됨에 따라 동명을 신명동으로 호칭하고 5개동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각씨족들이 도내 각처에서 전입하면서 집촌이 형성되었다.

2구가 4·3당시 그토록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2구는 1구에 비해 산 쪽과 가까웠고 또한 마을이 드문드문 있어 경비가 잘 안됐던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그에 비해 1구인 봉성본동은 자체방어가 가능했고 주변 한림읍장과 귀덕리장이 봉성의 소개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는 봉성 전체가 소개당하면 직접적으로 위협과 맞닿아 방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지명 유래

봉성리 최초의 리명은 확실한 문헌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구비로 전승된 것에 의하면 '어음비도내산리'로 불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어음비도내산리 - 「어음리는 1616년대 강씨 선조가 상동에 정착하여 이명을 “어음비리” 속칭 “어름비”라고 했다」 -(『애월읍지』 257쪽)라고 칭해졌다. 이에 대한 생각으로는 어음비리가 크고, 먼저 설촌되어 인지도가 높아 나중에 생긴 도내산리를 잘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음비리 속에 도내산리가 속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행정구역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근거나, 문헌이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한자 표기 기록은 1221년(고려 희종 7년)당시에 '도내산리'로 표기되었고, 후에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까지 140여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 도내산리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진다. 봉성의 옛지명이 도내산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문헌이나, 근거가 없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이기에 때문이다. 단지 봉성리의 리명의 유래는 속칭으로 불리는 “도노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한자어 표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도노미라는 말이 몽고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봉수가 금성리 소속인데 어떻게 봉성리의 지명유래에서 도내봉수의 봉화대가 거론되어지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금성리는 사람들이 거주하면 살던 중 183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봉성리, 귀덕리에 흡수되어 있다가, 1897년에 금성리라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옛부터 내려오던 습관대로 도내봉수를 금성리가 아닌 봉성으로 보는 것 같다.

“봉수가 고종당시까지 도내산으로 명명되어져서 봉성리가 도내산리라 불려졌다고 하는데...”라는 것보다는 “도노미”를 한자로 표기할 때 도내산(道內山)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증거로는 고려희종부터 공민왕까지 140여년 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로 표기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도내봉수의 위치를 금성이 아닌 봉성으로 보는 이유라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95년에 제작된 제주삼읍 전도에 ‘어도리’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95년(고종 32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시 개명하여 불렀다. 그 후 4·3으로 마을의 불안한 사회환경에서 이민의 안녕과 화합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마을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1953년 마을총회에서 개명하기로 결정, 16인의 한학도들이 연구하고 지형을 고려하여 ‘봉성리’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도리로 지속된 후 1992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였다.

3. 인문 환경

1) 인구

〈마을 총인구〉

세 대 수	계	남	여	가구당 인구수
423세대	1,329명	666명	663명	3.14명

(자료제공 : 봉성리 사무소 - 2000년 12월 31일 당시 조사자료)

봉성리는 아래 첨부된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다. 그만큼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농촌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으로 인해 젊은 계층이 수가 적다.(봉성의 경우는 40~50대가 특히 적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마을 개발과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마을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연령별 인구현황〉

	0~4	5~9	10~14	15~19	20~24	25~39	30~34	35~39	40~44	45~49
남	38	50	29	41	71	81	40	68	41	29
여	27	39	30	35	72	58	38	41	22	17
계	75	89	59	76	143	137	206	81	63	46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90	90~100	
남	33	42	38	37	10	11	6	3	2	
여	37	39	56	44	30	36	16	9	9	
계	70	81	94	77	40	47	22	12	11	

(자료제공 : 대정읍사무소, 2001년 현재)

2) 교육

공인된 문헌이 없어서 모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마을 유지 어르신들의 고증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우선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봉성리 마을에 공공성을 가지 최초의 교육시설을 1923년 개설한 보성서당이라고 되어있다(당시 2구에는 자리왓 위치에 신명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명서당에 관한 더 이상의 구전이나 문헌상 나와있는 자료가 없었다. 4·3 당시 자리왓이 분소되면서 함께 그에 대한 자료가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 이 보성서당은 그 당시 마을 총회에 의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는 서당을 통합하고 한문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신문학을 가르치기 위한 진보된 교육시설로서 옛 향사집(중화동 관전못 서쪽)에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 때 설립 책임자는 강희수란 분이며, 교장 선생님 당시 속장은 강하병이란 분이고, 교과는 한문과의 신문학과를 두어 한문과는 강선온 선생님이, 신문학과는 김중선 선생님이 담당하시었다. 이렇게 설립된 보성서당은 1940년 간이학교 인가시까지 17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음은 물론 학교인가를 받게 되는 모태가 되었으니, 이 서당이야말로 어도초등학교의 전신인 것이다.

그 후 1936년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봉성리 출신 재일친우회에서 모금한 기금과 본 리에서 모금한 기금을 토대로 지금의 농협지소와 리사무소 주위(어도리 3821-2번지) 800평을 매입하였고 재일본 청년회가 모금한 장학기금과 봉성리 청년회 기금으로 동 부지에 기와지붕인 청년회관을 신축(명칭은 청년회관이지만 실제로는 보성서당 교실 신축이었다)하여 보성서당을 이전하고 일정 새 교과서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생님은 최봉조 선생님이었다. 아마 이 시기가 학교의 기틀을 잡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 계속해서 마을 대표들은 공립학교 인가 추진을 벌여 4년 후인 1940년 3월 1일자로 2

년제인 애월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어도간이학교 인가를 받게되었다. 이 때 선생님은 박의황 선생님이었다. 또한 2년 후인 1942년부터는 그 당시의 이장님이었던 강경주란 분이 중심이 되어 부설 간이학교가 아닌 독립된 6년제 공립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어도리 3276번지 10여필지 1만여평(설립기준)을 매입 또는 기증을 받아 현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학교 인가를 신청한 결과 1943년 4월 1일 자로 일정 하에서 어도공립초등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어도초등학교가 출발하게 된 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전쟁말기이기 때문에 재정난으로 인하여 교실을 신축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 교과서에서 한글 교과서로 바꾸게 되었고 1945년 12월에 대한민국 선생님 자격으로 보성서당 당시의 최봉조 선생님이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1월에는 4·3무장대에 의해 교실이 전소되어 동년, 3월 1일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 폐교로 인하여 재학중인 저학년은 귀덕교에 고학년은 애월교(일부는 광금교)에 편입해야 하는 수난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다행히 동년 9월 1일에 복교 조치가 되었으나 교실은 물론이고 책, 걸상 하나 없는 학교가 되고 보니 불가피하게 종전의 향사 집과 개인 집에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고학년은 복귀가 안되고 1, 2, 3학년만 복귀가 되었다. 때문에 1949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해야 할 학교가 1952년에야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대적 역경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역경에서도 당시 학교사친회장이었던 강기형 어르신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불타버린 학교 터를 매각하여 1950년 지금의 학교부지(현 학교후문 쪽)에 추가교실 2동 3개 교실과 지금의 급식소 자리에 함석지붕으로 된 관사를 신축하여 학교의 토대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1953년에 함석지붕 2개 교실과 1954년 기와지붕 2개 교실 그리고 지금의 신명동 쪽의 부지에 2개

교실 정도의 초가를 마을 자체 기금과 노력 동원으로 신축하고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교사이지만 학년별 교실과 직원실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우리 어도 초등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봉성리, 어음 1·2리 3개 마을 주민이 동창관계 내지는 학구민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①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이농형상으로 인하여 어도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던 중 어도초등학교의 분교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긴급히 마을 임시총회에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형성되게 되었다.

그 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97년 8월 21일 긴급 마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학교살리기운동을 전개키로하고 추진위원장에 봉성리장 양순봉과 어도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인 김익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4명이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42명이던 학생수가 본 리에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입주한 6가구에 13명의 학생이 전입하여 총학생수가 55명이 되었으며, 1998년 1월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북제주군 지원으로 빈집 3가구, 리 자체보수로 4가구의 빈집을 개·보수하여 무상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7가구에 17명의 학생이 전입하여 98년 3월 현재 총학생이 72명이 되어 분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8년 2월 서제주골프장건설관련 주민숙원 사업비를 내시받고 1998년 8월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비 1억원을 학교살리기 다가구주택건립에 투입키로 가결을 보고, 또한 주민 1호당 일십만원씩 모금키로 하여 현재 계속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9월 추진위원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키로 하여 봉성리 3817-9번지에 3필지 235.29평을 1998년 9월 22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1998년 12월 국가시책에 따라 재적 학생수 105명미만인 학교는 2001년부터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1998년 12월 27일 마을정기총회에서 봉성리장에 강규방을 선출하고 1999년 1월 12일 봉성리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봉성리장 강규방을 선임하여 추진위원 재결성을 논의한 바 추진위원 84명을 재조직하여 이에 모든 권한을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받아 9세대 주택건립을 추진키로 복제주군 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9년 1월 14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및 독지가 모금액이 현재 1억 3백만원과 서제주골프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월중 기공식을 갖기로 결의하고 또한 소위원회를 결성하여 본 리 및 외지 독지가를 찾아 서면과 방문을 병행하면서 모금하고 또한 동창회 회기별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본격 모금운동과 주택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3월 어음분교가 본교로 통폐합되므로 인하여 어음분교가 12명의 학생이 편입되어 총 재적 학생은 84명이 되었고, 다가구주택건립(총 17가구)이 마무리되면 통폐합 대상학교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1999년 2월 21일 1차사업인 9세대 건립을 착공하여 1999년 5월 현재 공정율은 90%이며, 향후 8세대(1동)를 1999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

그후 1999년 4월 18일 어도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동창회장에 강성현(10회)을 선출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강규방과 강성현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현재 복제주군과 제주도에서 행정지원금을 다소 지원키로 약정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민 전체는 어도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여느 초등학교 학생들 못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을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는 이민들의 모습에 부흥하는 학교와 마을전체의 발전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4. 산업 구조

봉성리의 주요 농작물은, 옛날에는 옥두와 산디, 보리(주로 보리가 중심작물이었는데, 그중 맥주보리가 먼저 재배되고 나중에 쌀보리가 재배되었다. 하지만 쌀보리보다는 주로 맥주보리가 재배되었다.) 조, 콩 등이 재배 되었었고, 현재는 어느 한 작물만 주가 되어 재배하는 것이 아닌 복합농을 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작물로는 양배추, 보리, 조, 마늘, 깨, 수박 등이 있고 감귤은 부업으로 재배된다. 오이도 조금 재배되어지고 있으나, 단 당근은 밭에 돌맹이가 많아 재배시 당근에 흠집이 잘 날 수가 있으므로 재배를 하지 않는다.

주요작물은 감귤, 보리, 축산, 야채, 잡곡 등이다.

〈가축통계조사현황〉

(단위 : 두, 수, 군, 필)

축종	소				젖소	닭	말	산양	사슴	꿀벌	개
	계	한우	교잡우	젖소							
두수/ 사육 농가	701/33	318/12	383/21		655/4	6,000/2	175/14	5/1		125/3	160/85

(자료제공 : 애월읍사무소, 2001 상반기)

〈2001년 하작물 파종 상황, 전체 농가수 : 183명〉

(단위 : ha)

옥 도		콩		팥		녹 두		고구마		조		수 박		참 깨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6	3.3	30	7.5	1	0.4	12	14	13	9.2	59	25	44	30	175	112

* 과수원 현황 : 감귤 227ha

- * 농작물 재배현황 중 발작물의 경우 전해의 가격, 재배환경 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자료제공: 애월읍 사무소)

〈농기계 보유현황〉

경운기	예초기	바인더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난방기
251	133	64	24	10	100	11
연무기	파쇄기	건조기	분무기	양수기	절단기	운반차
7	14	8	3	2	1	1

(자료제공 : 애월읍 사무소)

5. 비 석

1) 열녀비

① 건립연대 : 미상

② 위치 : 노인 복지회관 서쪽

③ 내용 : 후면은 볼 수 없어 글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비석의 전면 우측에 棹楔로 음각된 것은 綽楔의 잘못이다. 그러나 오씨(吳氏)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효열록(孝烈錄)』과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전자는 “吳氏 本州於道村儒生姜渭輔之妻 早年喪夫 自縊同穴 有旌楔”이라 하였고, 후자에는 “吳氏 籍軍威 士人姜渭甫妻 早年喪夫 自縊同穴 事聞旌閭”라 하였다. 즉 “오씨는 본 주 어도촌 유생姜渭보의 아내인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자 스스로 목을 매어 남편과 함께 같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된 것은 1780년(정조 4년)이며, 개건한 연대는 1913년이다.

2) 노인 회관 옆 송덕비와 기념비

① 건립연대 : 1994년 11월

② 위치 : 노인회관

③ 내용 : 각각의 인물들이 노인회관 건립/건축시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세운 공덕비와 노인 회관의 건립 성금비 및 기념비

文鶴善公德碑	社長梁丁豪頌德碑	道山金公澄琰頌德碑	姜翔兵頌德碑	金賢有女史頌德碑	訓長姜昌弘頌德碑
訓長金在仁公德碑	處士姜公君吾 南平文氏乙兒 公德碑	處士高公己春公德碑	道菴姜公萬善公德碑	老人福社會館誠金碑	老人福社會館竣工記念碑公德碑

(노인회관 옆 비석들)

3) 학교앞 비석들(상단 맨 좌측부터가 순서임. 하단 우측 마지막 내용이 13번)

- ① 건립연대 : 1968(1~4), 1969(5), 1971(6~7), 1985(8), 1887(9~10), 1988(12), 1989(11), 1992(13)
- ② 위치 : 학교 앞
- ③ 내용 : 후학 향성을 위하여 애썼던 분들(주로 훈장들)과 학교의 건립에 관련하여 공을 쌓은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송덕비

耽羅梁氏記念碑	松村姜公全一配	訓長金公元河記念碑	道隱先生姜景周頌德碑	訓長洪公昌球永球記念碑	留鄉別監金公在浩之男訓長金斗日記念碑	訓長文承志記念碑	訓長姜公珠元長男鄉校訓長姜亨儉頌德碑
安貞集女史頌德碑	牧長和一社長朴鼎在頌德碑	牧長平和社長姜聲浩頌德碑	梁道峰洪東元梁丁生女史頌德碑	訓長梁公勸容頌德碑	古阜李氏花玉頌德碑	處社姜公昌模頌德碑	

4)마을회관 내 비석들

① 건립연대 : 1986년

② 위치 : 이사무소 내

③ 내용 : 마을회관 건립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송
덕비 및 공덕비와 마을회관 준공 기념비

會 公 計 認 士 士	博 文 士 學	僑 在 胞 日	淮 陸 將 軍	社 長 姜 瓊 厦 頌 德 碑	里 民 姜 性 玉 頌 德 碑
姜 詰 周 頌 德 碑	玄 平 孝 頌 德 碑	洪 純 一 頌 德 碑	洪 性 齊 頌 德 碑		
愛 鄉 的 丹 誠	電 在 氣 日 加 僑 設 胞	電 在 氣 日 加 僑 設 胞	僑 在 胞 日	마 을 會 館 竣 工 紀 念 碑	마 을 會 館 建 立 誠 金 碑
	捐 金 功 德 碑	捐 金 功 德 碑	文 錫 杓 頌 德 碑		

5) 愛校의 丹誠

- ① 건립연대 : 2000년
- ② 위치 : 애월읍 봉성리 3820 -6
- ③ 내용 : 『於道初等學敎는 봉황새 두 날개 고이 접은 가슴 속 같은 鳳城里에 1940년 간이학교로 출발하여 현재 2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말미암아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어 敎育廳으로 부터 통폐합대상학교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鳳城里民 및 어도초등학교 총동창회원 모두가 “학교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려 男女老少, 對內外 鄉里民, 여러기관 및 단체가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고 학생 자원을 충원시켜 60여년 星霜의 어도초등학교를 존폐의 위기에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여기 성금을 快擲해 주신 분들의 높은 功德과 愛鄉心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웁니다.』

6) 효자비

- ① 건립연대 : 1992년
- ② 위치 : 봉성리에서 광지로 가는 길가
- ③ 내용 : 延州玄公遠祥의 자손들이 선조의 효행과 선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

(자료제공 - 봉성리 사무소)

方 言

차 례

- | | |
|--------|-------------|
| 1. 연 장 | 3. 동사 · 형용사 |
| 2. 농 경 | 4. 기 타 |

봉성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인근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다. 농기구나 동식물 같은 경우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굳이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질박한 사투리 구사라 할 수 있겠지만 이도 봉성리만의 특성이 아닌 중산간 지역의 공통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봉성리의 주산업이 농사이다 보니 연장과 농경에 대한 것이 많았다.

1. 연 장

방언형	표준어
똥악세기(小)	함지박
〈중팍(中)〉〈도고리(大)〉	
덩드렁	짚 두드리는 방춧돌
마깨	방망이

ㄱ레	맷돌
정ㄱ레	가벼운 맷돌
풀ㄱ레	물먹이는 맷돌
남방에	절구 방망이
낭공쟁이	물건을 거는 나무못
동고랑	도시락통(개인용)
차룡	채룡(籠)
덕석	멍석
남박세기	나무 바가지
ㄱ는대구덕	가는 대로 만든 바구니
아기구덕	요람
(풀)보름구덕	물로 바른 구덕
송키구덕	ㄱ는 대구덕보다 두꺼운 대로 짠 바구니
ㄱ는체(小)	체
*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얼맹이> (大)	
글체	거름을 나를 때 쓰이는 체
웨따비	날이 하나 있는 따비
쌍따비	날이 두개 있는 따비
석끼 도치	돌 부수는 도끼
물외	물레
남자	나무로 만든 밥주걱
나대	나무끓는 칼

2. 농 경

방언형

벨진 밧

표준어

큰 밭

솔지픈 밧	물고인 밧
작지왓	자갈 밧
제월주	장남에게 물려주는 밧
우영팻	텃밭
고고리	이삭
가슬왓	밧 놀리는 것
고지	밧 이랑
훈벧데기	한고지를 갈고 돌아오는 밧갈이 방법
두벧데기	두고지를 갈고 돌아오는 밧갈이 방법
개밭 시리	메진 조
구진물	소먹이는 물
불림질	바람에 키질을 하면서 검불이나 티 따위를 날려버리는 일

3. 동사 · 형용사

방언형	표준어
건드러운	산뜻하고 상쾌한
우룩우룩한	다혈질적인
와랑와랑	뜨거운
하간 데	여러 군데
공글공글하다	흔들리는 모양
간데망어시	무례하다
오고한	고집센
븃들락 븃들락	꿈틀꿈틀거리는 모양
지락 지락	열매가 많이 달린 모양
빼다	(씨앗 등을)뿌리다

바실바실하다	곡식에 찰기가 없다
복실복실하다	흙이 잘고 부드럽다
오고생이	온전하게
몬지락하다	부드럽다
질그랭이	오랜기간 동안 머물다
구송하다	불평하다

4. 기 타

<u>방언형</u>	<u>표준어</u>
베착이	질경이
충데기	종달새
늦	이끼
삭다리	삭나무
작산 것	어른을 빈정거리는 말
야겸쟁이	염치없이 공짜 음식을 밝히는 사람
두벌콩	강낭콩
출	억새
오까기	녹비
신디, 밧나라	산도쌀
오마기떡	좁쌀 술떡
소도리	고자질

民 謠

차 례

- | | |
|-------------|---------------|
| 1. 자장가 | 6. 땡토소리(편토소리) |
| 2. 남방아 소리 | 7. 토역소리 |
| 3. 밭 불리는 소리 | 8. 청춘가 |
| 4. ㄱ래ㄴ는 소리 | 9. 상여메는 소리 |
| 5. 사대소리 | 10. 시집살이 노래 |

1. 자 장 가

- ① 자장 자장 윈이 자랑 우리아기 재와 도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우리아기 재와 주민 느네 아기 재와 주마
할망 손지 괴양 괴양 키와줍써
맹진국 할마님 우리아기 잘 키워줍써
윈이 자랑 윈이 자랑 금도 자랑 옥도 자랑
윈이 자랑 윈이 자랑

〈제보자 : 강옥렬(여·63세)〉

- ② 윈이자랑 자랑 자랑 윈이자랑
우리 아기 자는 소리 놈의 아기 노는 소리
윈도 자랑 금도 자랑 옥두 자랑 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는 게 자는 소리 노는 게 노는 소리

〈제보자 : 강제휴(남·67세)〉

2. 남방아 소리

① 그물 오름 강당장집이

정자낭 그늘에 고목낭 방에에
도와남방에에 서웃떨이 색을 넘서라 색을 넘서라
음 광닥광닥(방아를 친다)
잘 먹젠 신산 망산
아오산고지 올라강 보난
멀리 정당 쇠정당줄에
발을 걸고 누웁서라²⁾
내사 설왕 어멍아 불러도
어머니사 날 올랜 허라
가리오리 샌몐이 세난

〈제보자 : 강관옥(여·92세)〉

② 이어 이어 이어도 흐랑

이어 이어 이어도 흐랑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큰 딸아기
상수오름 부저리 집이 상알드레
메느리 드난 은방엿기 아홉이더라
가지재물 단단히 준들 은방엿기 단단히 주라
육이재물 단단히 준들 방엘 비서 단단히 주라
이어 이어 이어도 흐라

2) 죽어있었다는 뜻

방에 돌기나 지라 방에 돌게나 진들
나먹을 밥 한 술 이시라
심산 만산 지끈³⁾ 곳에
풀들이나 타 머거 보젠
들어가난 정당멀리 쇠멀리 줄에
발을 걸련 누우렴 서라
부르는건 냉수로다 찾는 것은 어머니여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큰 시누이……

〈제보자 : 전옥선(여·80세)〉

③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요방에랑 지어 지민
솔퇴낭 밥허여건
다섯식귀 여소식귀 머경 살어나젠 하민
시골 방에 지어보자
이엉 이엉 이어도 사나
애양 차(기합소리) 쿵닥쿵닥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방에 찢어야 일곱 여덟 식귀
밥허영 먹영 살어나주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제보자 : 강옥렬(여·63세)〉

3) 깊은

3. 밭 불리는 소리

- ① 어령 하랑 돌돌돌~ 아하 어~랴~
어령 아랑 돌돌돌~ 어~령~ 어~랑
요말들아아 저말들아 높은 동산 밭브멍 넘어가라
어양~ 하랑

〈제보자 : 진정희(여·82세)〉

- ② 흐랑 흐랑 흐랴~려~워 흐랑
어령 돌돌돌 돌아만 가라
요 모시(말) 저 모시들(말)
정신 출령 하~우 어 후~하랑

〈제보자: 강관옥(여·92세)〉

4. ㄴ래ㄴ는 소리

- ① 이어 이어 이어도 흐랴
어머니는 날 놀랜 허고랴
내사 설왕 어머니영 혼들
대루한질 놀래도 가라
이어 이어 이어도 흐랴
내사 설왕 어멍아 혼들
어머니사 날 놀랜 흐랴

〈제보자 : 강관옥(여·92세)〉

- ② 이엉 이엉 이어도 흐랑

산에 올랑 우짖는 새 소리
집에 들민 진 ㄱ래 소리여
이어 이어도 ㅎ랑 이어 이어도 ㅎ랑
이 ㄱ래에 넘어가민
자게 고랑 모멸 범벅허영
제낙머경 이식귀 밥 먹을 거여
흔적 고랑 밥 허영 먹게 범벅허영 먹게

〈제보자 : 강옥렬(여·63세)〉

5. 사대 소리

어기 어랑 사대로구나
앞 멩에랑 들어나오라
뒷 멩에랑 물러나가라
어야 소리에 한 모를 넘어간다
두 수리 반에 두 줌 반씩 늘려가난
어허 어허 밭 굴기가 앞 멩에가 들어온다
뒷 멩에는 물러난다
이여 이여 이여 방에나 ㅎ켜
이여 이~여 어~
이어도 ㅎ랑
이웃 ㅁ을도(청취불능)
설운 어머니도 뜻을 ㅂ민
이 밤에 청삼띠를 즈바노코
어머니야
난리들이더라
설운 어머니 뜻을 알 이들이 없더라

(칭취불능)

딸 생각하기는 저니(?) 아니 우더라

어머니야

난 생각말앙 배루팡 안진⁴⁾ 놀래를 지납써⁵⁾

요년 요년 생각하당보나

난 생각 말랜 허영

원통호고 억울호다

어머니야 그런 생각말고서

그럭저럭 살암시민

늪음도 먼디어성 돌아옵니다

그런줄 나도 알아

〈제보자 : 양인출(여·90세)〉

6. 팽토소리(편토소리)

① 어악 우리 역군이네

이내 말씀 들어주소

생은 기하 선은 귀학

어젯날은 대빨이 드니

오늘날은 혼귀 황천

어악 우리 역군이네

이내 말씀을 들어주소

팽토가로 곡조하고

달비채로 무장을 삼아

4) 배고파 앓은(?)

5) 놀 애를 지납써

일심동려 그 기호여
아무쪼록 지어주소
세상만사가 허사로다
시호일약 신농씨로
홀연 물에의 웬 일이며
천종 대승 공구자로
73에 조홀하니
억천화신 석가불도
79에 열반호니
이녁 인간 인생이면
일별 인간의 정축이라
에호 에제 초로 인생
일거 난날은 한탄마소
신앙 풍습 첨에 하고
일석 일찍 구둑호여
장매 호는 길일 양식
이날 이 시가 부명일세
요산 내룡을 돌아다보니
천리 내룡에 일석지지
용호 숲을 들이메고
무궁무궁 기예하다
요산 대룡을 돌아보니
천리 내룡에 일석지지
자녀들아 서러워말고
일가 친척도 석별마소
이십사방을 살펴보니
천축만(말)년에 무궁무궁
건방구곡(고고)천주봉은

팽주장수가 날 것이며
곤방 칭칭 천록봉은
석송무과 연출이라
손방 울울 문필봉은
문과급제가 연출이라
분 같은 요세상에
초로같은 우리인생
그럭저럭 다 되어간다
아들을 나면 열두형제
딸을 나면 십오형제
십년전에 발복뵈써
열녀현손이 다다하네.

〈제보자: 김상림 (남·64)〉

- ② 에헤야 달구
에헤야 달구
에헤야 달구
삼시번제는 둘러나치자
에헤야 달구
서는 우찬자랑 자랑호야
시난 풍수는 자랑호야
요산내룡을 돌아다보니
부귀영화는 혼흙지 바롱(발용)으로
요산내룡을 돌아다보니
천리의 내룡위에 일석지지
아들랑 낳거든 삼천오백명
딸랑 낳건 삼백오십명
칠석 멧제에 벌어진 괜당

다올같이 모여들 듯 석곽 같이 다려주소

〈제보자 : 강제휴(남·67세)〉

7. 토역 소리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임의 조종은 이 내로다

〈제보자 : 강제휴(남·67세)〉

8. 청 춘 가

정월 술학 속송한 므음

이월 매주엔 맺어놓고

삼월 사꾸라 술란한 므음

사월 흑싸리 허세로다

오월 난초에 나비 날고

유월 목단엔 춤을 추니

칠월 홍돼지 홀로 앉아서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 굳은 므음

시월 단풍에 떨어졌소

오동짓 달에 못오신 낭군

십이월 눈비에 오랏구나

얼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제보자 : 강제휴(남·67세)〉

9. 상여메는 소리

어허어허 한번 가민 못 오는 덜 가는구나
아까운 아기 버려두고 아까운 자식 버려두고
한 번 가든 세상에 한 번 못 오는 덜 가는구나
어허어이으어 어허야 어허야

〈제보자 : 강옥렬(여·63세)〉

10. 시집살이 노래

옛날 시집을 살젠 하니
승제와서 못 살더라
시아버지 상통에 재버려도 승이더라
시아마니 청문광에 나물채 썰어도 승이더라
시아바지 성문광에 나물채 썰어도 승
시아바지 상통에 채걸러도 승
합초에(?) 술 담아도 승이더라
이승 저승 요놈이 집이 못내 살겠구나
외 술되 추천(?) 쳐도 승이더라
객 술되 시건(?) 포라도⁶⁾ 승이더라
요 놈의 집이 승대와서 열두 스물 제와서 나 못살켜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대로흔디 끝난 간다
하도 조례 건너더니 마는 장평이 꺼정 꺼정 호멍 파드등 호게 노니

6) 팔아도

나가서 맥아서⁷⁾ 이로구나
몇 술되 시견 쳐도 송이더라
객 술되 시견 끝아도 송이더라
아이고 요 시집 못 내 살켜
내 숨 안정(?) 해로 두 해 날로 이틀 살로 두돌 살고라
나는 간다 간다
내 돌아 간다
한 줄 끝나다 보니 장평놈이 꺼경꺼경호명 느라가난
나 가슴아 핑의 가슴이로구나

〈제보자 : 양인출(여·90세)〉

7) 막아서

說 話

차 례

- | | |
|--------------|------------------|
| 1. 서부자 이야기 | 6. 거짓말쟁이 꼬마 서방 |
| 2. 설촌 강씨 이야기 | 7. 날개 돋힌 아이 |
| 3. 강종반 이야기 | 8. 봉성 강도령과 뱀 이야기 |
| 4. 물팔의 장사 | 9. 열녀문 |
| 5. 허급패 이야기 | 10. 부저리 이야기 |

두 차례에 걸친 예비조사 끝에 본 조사에 들어갔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우선 행정상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봉성리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해서 적당한 제보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고, 우리의 활동 주 대상이 되어야 했던 90세 이상 고령자 분들 중(90세 이하 주민들 대부분은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었다) 청각 이상자가 몇 분 계신 관계로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랜 관행으로 인해 빚어진 불신이었다. 그 누구보다 4·3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에 뭐 하나 잘못 말했다가 행여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는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셨다. 예비 조사 기간뿐 아니라 본 조사(1차조사)에서도 ‘부저리 이야기’ 등 극히 적은 양의 정보만을 접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설화 팀의 본의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의심을 조금 거두셨는지 그제서야 말문을 트시고 미처 예비조사에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채록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주리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여 '설촌 강씨 이야기', '서부자 이야기', '강종반 이야기' 등을 실어 보았다. 이 자료는 테 앞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최대한 노인 분들의 말씀을 존중하였고,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재구성하여 옮겼다.

1. 서부자 이야기

이조시대에는 서씨가 건너와서 살았다는데 두 명의 후손이 있었어. 구물리는 서수발(형)과 서이발(동생)이 이서신디. 동생은 못살아 부난 형한테 찾아갔다는 거여. 그런데 형이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한경에 있는 용당에 가 부렸다는 거라. 그래서 거기(동생 집)는 남자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기(형 집)는 딸만 4형제가 되어부난 후(後)가 없거든. 그래서 동생한테 양(조사자 주 : 양자)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은 '찾아가도 아무것도 안 줘도그냥 지금 양을 달라고 할 말이 있느냐' 했다는 거여. 형은 할 수 어시 돌아와서 딸 4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줘불고 죽어부니까 후가 사라져 분거라. 서부자의 큰 사위가 구물리 효자 할아방이고, 둘째 딸은 애월 김칩에 시집을 가서.

〈제보자 : 현사원(남·68세)〉

2. 설촌 강씨 이야기

350~400년 되실거여. 상가리(봉성의 동쪽 마을)에 살던 그 할아버지가 서울 과거 보래 걸어가당 중간에 노숙을 하였는데, 잠을 자는디 점쟁이가 어디가시냐고 물으니깐 서울에 과거 보래 간덴 하니까 "당신은 가지말고 살던 데서 서쪽으로 얼마나 나가 거기서 터를

잡으면 과거 보러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니깐 과거를 보지 않고 돌아와서 터를 잡아 지금은 그 할아버지 자손이 천명이 넘어. 그래서 여기 설촌을 강씨가 한 거여.

〈제보자 : 현사원(남·68세)〉

3. 강종반 이야기

강칩이 종반이라는 할아방이 어려우니까 애월 가그냉 환상(환곡)을 꺾오당 보난 광지에서 마을 사람 둘이 봉변을 당했거던. 모다 들영 고칩이 하르방 환상 타 놓은 것도 빼앗고 안 났거든 그래서 가그냉 ‘니네들 거 뭇들 허는 거냐’ 하니 그 사람들이 ‘저 어른은 고치 삼서’ 젊은 놈은 거칠게 들어허멍 허가니 아무래도 동네사람들 맞는 거 보멍 그냥 내부령 올 수는 없거든 ‘야. 이놈들 물러서라. 이놈 행위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고칩이 사람들이 뵈래보난 동네에서 경 힘이 세덴 헐 할아방이 마침 당했거던. 게난 호끔 안도감을 가졌는디, 그 할아방은 ‘너희들 그 사람을 풀어봐’ 그 말을 듣지니 모다들거던. 할아방은 ‘이-놈들이’ 하고 혼놈 발목을 한 짝 심영 획 흔들어 가난 그걸로 매를 삼앙 광지 사람들 들어 썩 가는디 문짝 돌아나불고, 발목 죄운 놈은 ‘잘못해수다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니 그 놈 내버려두고 동네사람들이영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서.

〈제보자 : 강여길(남·72세)〉

4. 물팔의 장사

할아방이 새벽에 보리 베면 할망은 그걸 말려그냉 삶아 먹는 거

라. 그런데 하루는 보리 비래 갔다가 어두룩한디서 누가 보리를 비고 있거든. 자세히 보니, 동네에서 경 힘이 세다는 장사라. 그래서 '이놈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카?' 호명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신디. 그놈은 아파하지도 않고 몽둥이가 튕겨나강 훌딱 몽둥이 내버려지크라라. 서로 알아 보난 밭임자였더라.

〈제보자 : 강여길(남·72세)〉

5. 허급패 이야기

명월에 만호(萬戶)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당시 세금은 곡식으로 받았주. 창고에 보관했다그냥 환곡을 했ندي. 일곱 되를 주었다가 받을 때는 한 말을 받아서 이자가 삼 할이라서. 이것이 4·3 당시까지 곡 석이자를 삼 할을 해서. 허급패가 쇠를 몰양 성안에 가니 중포(대포)가 있는거라. 그래서 거기 쇠를 텅 댔더니 관리들이 나와서 무기에 소를 댔다고 야단이라. 허급패는 '쇠 매기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하니 관리들이 '그러면 내가 중포를 들면 용서해준다.' 그거는 보통사람 열이 들어도 못 드는 것인데 장사가 오코트 들러서 다른 데 놔두니 관리들이 겁먹고 가부러서. 어도에서는 이 장사를 이길 놈을 모집하는 방문을 놓았는데 금능 사람이 씨름을 잘 한다고 소문났길래 그를 데려왔다가 급패가 다시 환곡을 타러 오자, 금능 사람이 나와 버선을 벗어놔는데, 급패는 물가죽 허리띠를 행 가신디 고 놈을 보니까 흰 옷으로 잘 차리고 손이 하얀 걸 보니 일을 안 해난 사람이라. 그래서 허리띠를 쭉 늘여그냥 혈렁하게 했다가 손을 잡을 때는 배를 볼록 해서 팽팽하게 했주. 그러니 그놈은 손이 졸라지크라라. 그래서 힘을 못 썩 급패가 엎어치난 기자 벌렁 자빠진 거라. 그 후로는 다시는 씨름할 사람이 안 나오고 대들켄 헛 사람도 어섯주게.

〈제보자 : 강여길(남·72세)〉

6. 거짓말쟁이 꼬마 서방

옛날은 어릴 때 결혼을 하였거든. 결혼을 허난 어린 남자고 신부는 나이 많은 서로 부부 사랑도 몰르고 (한마디로) 아기지 아기야. 경허난 그 예전은 동네 나쁜 살림이 좀 추구려서 좀 얻어보자고 허영 사랑하니까니 여자 약한맘으로 허영 옛날은 지장밭, 조밭에 새가 먹으니깐 그 새를 도려서 집에 식구가 이 사람 밥먹으민 다른 사람 강 지키고 하느디 그 며느리도 시집살이 하멍 지키게 되언. 경행, 시아방이 아들 고라 '너 바티 강 새 들이라. 처 골안 밥 먹게 데령오라.' 아들이 처를 못 받 당목에 올라서 어디 갔는고 찾아보는데 지장밭이 흔들려. '저긴 어떻허난 흔들림신고.' 거기 보젠 으상으상 걸어 가난 남자가 오꼳 일어남 가는거 아니여. 신랑이 어려노니깐 각시한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골아불켜. 골아불켜.' 하노맨 신랑한테 '곳지말라 곳지말라.' 허난 옛날 주맹이 고운게 구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여. 주맹이나 쥐어주면 안고르켄 하난, 이제 집이 왕, 농촌일 바쁘난 못. 날이 지나가남 지신디 안주난 오꼳 골아버렸거든. 그 며느리가 밭에 갔다오니깐 집안이 난리라. 집안 식구가. 우리 아들이 어렸다고 나무래서 남편내 얻었다고 막 야단들을 허나내 이젠 허인 일이니 조용하난 신랑과 방 강 '곳지 말랜해신디. 무사 골아녕나 쫓겨남 살지 못할켜.' 하난 주맹이 주어주면 아이 골은걸로 한다고 하난애 경행 며느리가 주어주었거덩.

주어주난 아버지가 바티 말긴 물 뵈래 간다 하니깐 '저도 물 보래 고치 가겠어요.' 하난 그러라고 행 강. '저, 어머니는 저 뒷집에 신서방과 누웠어요.' 허고, 말 보래 갔당오멍 도랑왕 어무니한티 '아버지는 물광 누웠어요.' 허난, 이젠 막 난리가 난 야단이지. 사람이 할 게 없어서 물광 했느냐고. 막 야단들은 왕왕 하더니게. 그 여편내 그 할아방 들어오남 그 말을 허나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청히 안

헌 말을 지어낸 것이었구나.’ 며느리 보고 ‘며느리야 며느리야 우리 아들 말 들었당 큰일나켜. 니 안 얻은 서방 얻었다고 하고, 아니 니 아버지는 물광 얻었맨 하고, 새어시 거짓말을 땡근거여.’ 경 행 나중에 그 집이 잘 살았다고 합디다.

〈제보자 : 강관옥(여·92세)〉

7. 날개 돋힌 아이

고광에 그 사름 어멍이 죽으난 거기 묻었거든. 신방이 여기는 산터가 좋으니, 여길 묻으면 왕이 난다고 허난 어멍을 고광 안에 묻었거든. 그 후에 이 마을에 불이 막 난. 일루 나고 절로 불나고 허명해가난 신방이 ‘아무고라도 곳질 말라고.’ 집이 강도 각시 헌 티라도 어디 영장 묻은 말은 곳지 말라고. 모르게 허였는디 경만 해시민 그 집이 왕이 나나 어떻할건디. 경 해일이 나가냥 동네 사 람들이 오죽 우승승 우승승 이거 뭇일이 어떻 일인고 해가난 솔 췌기 부인이 우리 고광 쏘구배 시어멍인가 시아방인가 영장해부 난 불난나고. 경 허나네 그 말이 이제 범더래 미청(관가에까지 소 문이 남) 강 광 보니까 쪼금 이시몬 (애기가) 날개 돋고 일어나젠 혈적에, 다시 영으로 살아서 날개돋고 일어나그네 왕이 되자고 허 는디, 오꼴 각시가 고라부니까 막 동네 사름들이 강 광 보난에 막 날개 돋고 막 일어낭 마치 벌거지 땅 속에서 죽으민 고치 되듯 허 난 그 왕이 이서야 나라가 점점 발전이 될건디. 우리 나라가 시기 지심으로 망했거든.

〈제보자 : 강관옥(여·92세)〉

8. 봉성 강도령과 뱀 이야기

토산 장개를 갔는데 물 타고 가당보난 곳을 허시 '딩딩' 하명. 토산 곳을 헌거라. 신바해영 막 잘 출려놓고 곳을 허면서 그 배염 헌티 곳을 한거라. 귀 돌은 배염헌티 곳을 허난 이제는 곳을 허는디 들어가니깐 '이건 무슨 곳입니까?' 허난 '이 배염을 여기는 곳을 안허문 못 사니까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아날려 하니까 곳을 한다.' 한거라. 곳을 허는디 물탄 강도령이 처갓집이 강거라. 그러다가 내려서 칼을 내려놓고 그 배염을 팍 찍어 죽인거라. 죽여부난 북군쪽에 강도령 이제는 그곳은 곳을 안허고 살거든. 계속 곳을 허여도 이제 곳을 허려면 '목안(북제주군)에 강도령님 오시니깐 어서 어서 몰러 사십쇼.' 신방이 그렇게 한단다.

목안에 강도령 도착합니다~

어서 어서 몰러잡서 몰러사면 살아나고

조상님네 어서 몰러 사십쇼~ 어서 몰러 사십쇼

그래가지고 배염 땅의 토산은 강도령 온다면 뱀이 차츰차츰 사라져 부는 거라. 그래서 강도령 묵은 요 골목 안에 하르방이야.

〈제보자 : 강옥렬(여·68세)〉

9. 열녀문

아주 옛날 옛날에 요디 열녀문 게난 사무실 앞에 비석이 하나 이서. 그 비석 하낙 여자가 열 여섯에 시집을 와신디, 그 열녀문 거리 강집의 하르방 허고 결혼을 허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게 대정쪽의 모슬포 넘어간 하원 쪽의 할망인데,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덜까지 언약을 했거든. 건디 신랑이 열 다섯 살 나니까 오꼴 병에 들어 가지

고 고치지 못해서 약혼만 한 상태에서 죽어 부렸어. 죽으니깐 처년 데 머리를 풀고 와서 죽었다니까 상 앞에 아자서 자기가 상제질하고, 신랑광 약혼만 했는데도 감정시키고 상제노릇 허고 죽은 삼년상 고향으로 돌아 간거라. 그 뒤 그 할머니가 수절을 지킨 거야. 지키면서 80이 넘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니까 강씨 집에서 묻고 비석을 세워서 열녀문 거리. 큰거리가 된 거여.

〈제보자 : 강옥렬(여·68세)〉

10. 부저리 이야기

우리 밭이 부저리 터가 있는데, 아주 부자여. 건디 그 사람이 역적으로 몰렸어. 역적으로 몰린 건, 너무 부자라부난. 높은 놈이 절로 배 탕 와가지고 부저리를 억압적으로 눌르젠. 흥영 막 시켰주. 건디 신 80개 담아내라 허민 1시간에 신을 80개 딱 씹아 내치곡, 돌 몇 마리 내여노라 허민 돌 몇 마리 탁 묶엉 내치고 뭐 내노라 허민 뭐 탁 내놓고. 부저리 거기 묻었어. 묻어진 무덤도 있어. 그런데 그 부저리가 참외를 심그면은 은접시, 놋접시로 다 그 옛날 고물도 다 나왔어. 그걸 밭에 가른 흔적상으로 알 수 있어.

〈제보자 : 강옥렬(여·68세)〉

信 仰

차 례

- | | |
|----------|----------|
| 1. 공인 신앙 | 3. 무속 신앙 |
| 2. 마을 신앙 | 4. 기 타 |

봉성리는 공인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인신앙은 자료와 주민들의 협조로 조사가 수월했다. 마을신앙은 아직까지 마을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거의 포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 산신제, 칠성제, 방사탑, 어도강씨사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었다.

이에 비해 무속신앙은 조사가 쉽지 않았다. 현재 심방이 죽고 없는데다가 신목인 뽕나무마저 폭풍에 의해 꺾이자 무속신앙도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심방 없이도 사람들이 당을 찾고 있어 미비하나마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봉성리에는 대체적으로 공인신앙 이외의 신앙은 많이 사라져버렸다. 이는 주민들이 무속신앙이나 마을신앙보다는 공인신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봉성리도 현대의 문명을 받아들이며 나름대로 믿음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공인 신앙

봉성리 공인신앙에는 불교, 기독교가 있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는 인지도가 좋은 편이었다. 기독교로는 봉성 교회가 있으며, 불교는 선운정사, 금천사, 도명법당이 있었다. 도명법당은 귀덕에 속한 사찰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1) 기독교 : 봉성교회

① 기독교(봉성교회)교명 : 대한예수교장로회봉성교회

② 연혁, 사업 :

1976년 8월 강전휴집사에 의해 봉성교회가 창립

1977년 7월 3892번지에 교회를 건축

1980년 6월 농번기 탁아소를 개소

③ 신도: 교인 현황은 노년층이 25명, 중·고등부가 5명 정도로 총 30여 명의 신도들밖에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적은 편이다.

④ 대표자: 강전휴 목사

제보자에 의하면 강전휴 집사가 일본에 있다가 건너오면서 봉성교회를 창립하였다고 하였는데 교회 연혁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다. 위의 봉성 교회의 연혁을 참고하려고 한다. 봉성리 주민들은 타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에 근원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봉성교회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과 자선사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친숙해지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 다른 마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봉성리도 몇 안 되는 신도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교육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결과로 신도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없어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신도들의 포교활동은 물론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충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제보자 : 이승호 목사(남·44세)〉

2) 불교

(1) 금천사(金泉寺)

- ① 교명 : 大韓佛教 元曉宗 總務院 金泉寺
- ② 연혁 : 서기 1938년 3월 금천동 조개 동산에 설사
서기 1948년 10월 4·3사건으로 소개 중화동 향사에 봉안
서기 1950년 3월 3191번지 현 위치로 봉안
서기 1969년 5월 조계종에서 원효종으로 변경 신청
서기 1970년 3월 원효종 인가
- ③ 주지: 강동은 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현재 수방스님이 절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사는 강동은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런데 창건된 지 3년 만에 4·3사건이 터졌다고 한다. 그때 어음리 사람들이 대거 이곳 봉성리로 옮겨오게 되면서 현 금천사 터전을 잡았다고 한다. 4·3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강동은 스님이 금천사라는 사찰을 재건했다고 한다. 이 사찰이 세워지기 전에는 잠시동안 구물동의 향사집에 잠시 있었다고도 하였다. 신도들을 위해서는 4월 8일, 7월 7일, 동지, 정월 7일, 15일에 연중행사를 열고 있고 그 중에서도 4월 8일 행사에는 90%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신도들은 봉성리를 중심으로 애월, 한림 납읍에 이르기까지 다양

할 뿐더러 그 수가 15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제보자 : 수방스님(남·66세)>

(2) 선운정사

선운정사의 현오스님을 잠시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선운정사를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시기의 영향을 받아 건립했다기 보다 꿈에서 선물을 받아서 현재 사찰의 터전에 자리잡고서 대략 3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한다.

종파는 태고종이며 아직 사찰이 건립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주민들의 말로도 그곳은 얼마 되지 않아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이곳 봉성리 보다는 한림, 제주시 등 타지의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교인 현황으로 보아도 이 사찰은 봉성리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짐을 알 수가 있다.

<제보자 : 현오스님(남·46세)>

2. 마을 신앙

지금도 봉성리에서는 전체적인 마을제는 모두 포제단에서 지내고 있다. 포제 이외에 마을에서 지내는 제 중에 칠성제와 산신제가 있었고 그 외에 방사탐도 찾을 수 있었는데, 칠성제와 산신제는 지금은 없어져 버렸고 개인적으로 올린다고 한다. 마을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포제와 마을제는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었지만, 신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몇몇 제보자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1) 포제

① 명칭 : 포제단

② 위치 : 마을회관의 북쪽으로 500m 정도의 어도오름의 동쪽 부

근에 있다.

③ 제신: 토신, 포신

④ 제일: 음력 정월초

⑤ 제장: 제청(제관들이 제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장소)
위쪽으로 10여 미터에 평탄한 돌이 돌이 놓여 있는데,
이곳에서 제를 올린다.

⑥ 제의관리: 제관들이 포제를 할 때 액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위에 금줄을 쳐왔지만 지금은 마을회관 입
구에만 매고 있다. 제관들은 포제 일주일 전부터 모
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3일전으로 줄었다고 한다. 제
관들은 삼헌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사,
대추, 찬자, 알자, 봉로, 봉향, 봉작, 전작, 주감, 반감,
전사관등의 17여 명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주감,
반감이 빠지고 1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관은 나이든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바뀌어간다. 그 이유는 나이든 어
른들이 제를 지내기에 힘이 들어서 그것을 젊은 사
람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⑦ 제청: 시멘트 집으로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었다.

⑧ 제물: 돼지(예전에는 흑돼지 숫놈이어야만 했다.) 2마리, 닭 2
마리, 생선 2마리

신을 두분 모신다하여 항상 제물을 둘씩 올려야 한다고 한다. 제보
자에 의하면 포제는 5~6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하였다.

〈제보자: 김상립(남·64세)〉

2) 방사탑

할망당 쪽으로 가다보면 돌로 만들어진 방사탑이 하나 있는데, 이 방사탑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다반사였다. 다행히 제보자 강순고씨에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이 방사탑은 다른 지역의 방사탑처럼 액운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과 달리 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방사탑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곳이 봉성리에서 가장 기가 약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방사탑의 모든 부분을 제보자에 의지해야만 했는데, 제보자도 이 방사탑에 세워진 연도나 그 당시의 상황 등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다.

〈제보자: 강순고(남·72세)〉

3) 칠성제

음력 정월에 집안에서 조왕신, 칠성단신, 문전신등의 7신을 모시는 제를 말한다.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축쟁이나 스님을 모셔다가 제를 지낸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당이 남아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무당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무당을 모셔서 제를 지낸다고 한다. 칠성제는 음력 정월에 지내는데, 상이 났을 때는 지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메어놓은 금줄이 무너져 버린다하여 장사가 끝났을 때 지내야 한다.

〈제보자 : 김상림(남·64세)〉

4) 산신제

봉성리는 중산간 마을이라서 말과 소를 많이 길렀다. 말과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음력 정월에 제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山神제’라 이른다. 산신제는 밥그릇에 밥과 물을 적당히 넣고 땅에 파묻어서

제를 올린다. 그래서 나중에 밥이 잘되면 말과 소 같은 가축들이 번성하게 된다고 한다. 밥을 할 때는 조밥 두 그릇, 찰쌀밥 두 그릇씩 해야 한다고 한다. 산신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모두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보자 : 김상립(남·64세)〉

3. 무속 신앙

무속신앙은 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다. 무속신앙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당이 생존해 있지 않아서 제보자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무속신앙에서는 사신신앙과 유명했던 심방에 관한 얘기를 들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에 의하면 사신신앙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다. 심방에 관해서도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심방이 있었으나 사망하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맥이 끊겨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봉성리에 몇 개의 당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했으나 실제로는 당이 하나밖에 없었고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구머리당과 할망당은 같은 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은 하나이지만 모시는 신들이 달라서 각기 당 이름을 달리 불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는 하나의 당에서 각기 제를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사신신앙

뱀을 모셔다 놓고 제를 올린다는 사신신앙은 예전에 10가구 정도가 계속 있었다는데, 4·3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지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사신신앙을 어느 집에서 사신신앙을

믿는다고 하여 찾아보았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제보자: 강순고(남·72세)〉

2) 당

이 명	堂 名	神 名 또는 본초	직 능	제일 및 제명	구술자	其地
봉성리	묘일당	보름우 문씨영감	生 産	卯 日	下 貴 里	
		보름우 오씨할망	物 故	擇 日	男 來	
	구머리당	송씨할망	戶 籍	擇 日	妻 宗 圭	
			상 동	擇 日	上 同	

① 할망당

봉성리 어도오름 동쪽에 위치한 구머리 마을 안쪽 밭에 당이 있다. 신목은 팽나무였으나 70년대 태풍으로 소실되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끔씩 당을 찾아 비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제일 : 묘일

제장 : 팽나무가 있었던 자리

신목 : 팽나무(지금은 태풍에 의해 남아 있지가 않다.

제물 : 밥메 1그릇, 다대(메미로 만든 동그란 떡) 생선

〈제보자: 강순고(남·72세)〉

② 묘일(할망)당

현재 당이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위치는 위에서 말한 곳과 같은 곳이지만 설명에 있어서 제일, 신목, 제물에 관해서는 유사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이 당은 묘일에만 지낸다고 하여 묘일할망당이라고 하고, 예전에 없어져 버렸다던 자리에 신목(팽나무)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 개인적으로 찾아가 지성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 이 당은 원래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옮겨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당내라는 현재의 당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자리를 알지 못했다. 제보자 강일화씨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얘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당이 옮겨온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옮겨온 이유는 당을 찾아 제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개짐승들이 달려들어서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당은 옛날에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데려갈 사람을 물어보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 곳은 이 지역 사람들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찾아오는데, 그 당시 이 당을 찾는 사람들이 구머리에 당이 위치해서 구머리당 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자료에는 구머리당, 할망당, 그리고 그 외에 오름 근처에 하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보자 강일화씨에 의해 모두 같은 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제보자에 비해서 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고 할머니로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곳에서 오색줄이 묶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당 신앙이 아직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 : 강일화(여·66세)〉

4. 기 타

봉성리에 신앙 이외에 어도강씨사당과 세시풍속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어도강씨 사당이 없어진 이유로 많은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예전 사당이 있던 자리에 제보자의 도움으로 가볼 수가 있었고 세시풍속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이 곳의 독특한 풍속을 엿볼 수 있었다.

1) 어도강(姜)씨 사당

봉성리의 설촌유래부터 시작되는 어도강씨는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종손의 집 옆에 사당을 지어서 문중의 제를 이곳에서 지내왔다. 그런데 70여 년전에 사당을 없애고 사당의 기와로 노인회관을 지었다고 한다. 사당이 없어진 이유는 어도강씨 문중에서는 제를 개인적으로 따로 모시자는 추세로 기울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도강씨 종손이 봉성리 밖으로 나가면서 사당이 없어진 계기가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제보자 : 강승규(남·56세)〉

2)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란 우리의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의례를 말한다. 그 내용은 농업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고 초자연적인 주술성을 띤 부분도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봉성리에는 신구간, 정월초하루, 입춘, 떡쳐먹기, 단오, 수놓음, 닭 잡아 먹는 날 백중, 한가위, 팔죽 쑤어 먹는 날, 장담기, 원님놀이, 뽕이치기놀이, 꼬녀두기놀이, 콩웃놀이, 수건돌리기, 고분재기(술래잡기), 공기치기, 자치기, 고무줄놀이, 다리넘기, 불차지 놀이, 대중소놀이, 구슬치기, 빠지치기, 목대치기, 가위바위보 멀리가기(반복하기), 못치기, 땅따먹기, 몰타기놀이 등 많은 세시풍속이 있다. 모두 조사할 수 없었고 그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① 방실이 떡쳐먹는 날(떡쳐먹기)

방실이 떡쳐먹는 날은 정월대보름날 시루떡마다 사람 이름을 써서 찢어 다음 그 익은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한해 운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두의 이름을 쓰는 경우 또는 이웃이 모여서 하는 경우 등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 그 모습은 다양하였다. 하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가족 같은 경우는 가장의 운수가 가족의 운수를 모두 대신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도 하며 떡을 할 때는 남의 집 정낭을 훔쳐다가 해야 운수가 따른다고도 하였다. 그 외에도 오곡밥을 해 먹으며 노는 경우도 있었다. 떡을 찌 먹는데 회비가 엇갈릴 때도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찐 것인데도 어떤 부분은 잘 익고 선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월 대보름날은 떡을 찌 한해의 운수를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이날이면 나이 많은 부인들이 이민관에 모여 노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제보자: 김상림(남·64세)〉

② 닭 잡아먹는 날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 하여 마소를 위하여 제를 지내기도 하고 무당이나 절에서도 백중맞이를 지낸다고 한다. 바다에 가서 목욕을 하면 굶은 허물이 낫는다고 하여 산으로 바다로 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백중날 마농(마늘)을 심으면 마농이 잘 자란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보자 : 수방스님(남·66세)〉